

부활 제6주일

기도서 303면 (다해)

제1독서 : 사도 15, 1-2. 22-29

제2독서 : 묵시 21, 10-14. 22-23

복음 : 요한 14, 23-29

술정이

“어머니의 마음은 신양인의 안식처”

공동체는 ‘운명과 삶을 함께하는 몸’이며 집합체는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룬 데어리’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공동체는 아름답고 성스럽다. 전정한 에너지는 공동체 안에서만 생성된다. 인간들은 한결같이 공동체를 희구해 왔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만 기쁨과 행복, 나가서는 성장을 확인해 왔다. 공동체의 성원들은 한 곳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며 하나의 소망을 같이 나누어 비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동체가 운영되는 비결은 자율과 혼신이다. 그래서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

집합체는 전혀 양상이 다르다. 무질서와 이권과 책임전가가 판을 꾸민다. 에너지는 분산되며 연대의식의 결여로 소외현상이 두드러진다. 물론 의적으로는 ‘하나(데어리)’를 이루고 있지만 모래성과 같다. 따라서 집합체의 통솔기능은 오로지 물리적인 방법과 양해가 없는 법이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통제되는 집합체의 양상이었기에 예수께서는 율법의 폐지와 인간해방을 선언하셨으며 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12제자들도 집합체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수난에 동참할 수 없었고 산산히 헤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룬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초대 교회의 모습은 바로 공동체였다. 실제로 미사성제는 집합체를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훈련의 장이며 일치와 나눔의 신비가 영속되는 현실인 것이다. 교회가 전통적으

로 미사참석을 강조하는 까닭을 엊어서는 안된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성모성월이며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 조명하면서 집합체와 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나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 사

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든지 어떤 동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외없이 실락원이 되고 만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의 다름이 아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뿌리뽑힌 나무와 같다. 그래서 거칠고 성급하고 방황하는 것이 일상이다.



◇ 운명과 삶을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

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우리라는 말은 공동체가 아니라 집합체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현대인들에게는 격광을 피해서 안주할 포구가 없다. 모성(母性)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특별히 성모성월을 의미있게 보내고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는 것은 성모님이야 말로 신양인의 안식처이며 포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거칠은 숨결을 고르고 움켜쥔 주먹을 펴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주

아이들의 가출은 집합체로 부터의 탈출 현상이다. 부녀자들의 가출도 마찬가지다. 노사분규라든지 학생소요 현상도 집합체를 공동체로 만들자는 외침인 것이다. 이 시대의 정표 안에서 신앙인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고 “나와 함께 모아 들이는 사람이 되리”고 당부하셨다.

집합체 안에서는 상처만이 있을 뿐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다. “자 일어나 가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다 같이 응답하자. “예”라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요한 15, 27)

마음의 창 열고
가족과 사랑의 대화를

여명



양상직
(암브로시오)

이나 자선활동 그 밖에 돈을 힘드는 일은 일체 모른체 하거나, 고스톱으로 자정을 넘고 돌아와 헛기침이나 하는 이는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자녀를 독자적 인격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식은 이루어진 부모의 뜻을 대신 이룩하거나 부모님 목에 힘을 넣어주 위하여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어디까지나 자기고유의 독자적 유일적인 인생을 위하여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보여주던 가부장적 권위와 관대한 부성, 어머니의 맹목적이고도 자기희생적인 모성에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변천을 거듭해온 현대사회 속에 놓여 진 핵가정을 관리하기에는 처음부터 부적절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부자간의 인륜에 변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가정이 존립하는 사회환경과 자녀들이 극복해야 할 교육환경이 구조적인 변혁을 하였다는 것인데 우리들 부모가 적응하지 못하고 어마무게하는 사이 어느덧 아이들은 양에 차지 않는 기성인으로 부모품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혹은 학교와의 유기적인 제휴가 강조되지만 이것만으로 우등생 부모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내나름의 부모학원칙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는 우선 인격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 직장, 교회와 가정생활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주일 미사 참례를 빼고나면 본당사업

을 힘드는 법을 따로 공부해야만 되는 세상이 되었다. 돈벌어오는 바깥일에 매달리다가 때때로 자리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야 한다는 상투어나 반복하는 아버지는 낙제생이다. 통지표를 받아들고 안달을 하며 경쟁대열로 몰아대는 성적 제1주의의 극성 엄마도 역시 낙제생 엄마다.

아버지가 보여주던 가부장적 권위와 관대한 부성, 어머니의 맹목적이고도 자기희생적인 모성에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변천을 거듭해온 현대사회 속에 놓여 진 핵가정을 관리하기에는 처음부터 부적절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셋째 자녀를 위하여 회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들을 위하여 그하고 회생한다는 것은 다르다. 자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부모가 여유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 부모보다 더 지극한 효도를 보여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끝으로 부모는 성실한 상담을 되어야 한다. 않는 속도로 끊임없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구와도 말못 할 고민, 불안 초조한 꿈들을 함께 털어놓고 더불어 결해가는 유능한 카운슬러가 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부모학의 총론을 약해 보았지만 이것들은 결코 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륭한 자녀가 되려는 효도의 노

에 뒤지지 않게 훌륭한 부모

되어 보겠다는 부모로서의 노

필요할 것이다.

〈변호사/덕진천주교회〉

가정은 작은 교회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된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여 기르십시오 (에페소 5, 21~6, 4).

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설혹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받고,
네가 젊고 힘 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 여기지 말아라.
네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네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스러질 것이다.
(집회서 3, 12~15)

소리

살 권리는 있지만 죽을 권리는 없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을 살면서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봐도 정확히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럼 「자살」이란 무엇인가?

그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하지만 그 의미는 시간과 환경 위치 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다난다.

기예르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장큰 병은 「절망」이라 말했다. 얼마전 가난이 싫어서 독약을 선 어린 4자매의 사연이나 지난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울교대 南泰賢군의 사건 등등 부분의 자살은 더이상 살아서 하고 괴로움을 받느니 차라리 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고통을 헌하고 마감지으려는 생각에서 끝난 것이다.

그런데 자살은 자살로써 모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주는 충격과 주위의 반응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 자는 말이 없는데 그 죽음을 고 왈가왈부하며 때론 시신의 리문제까지도 사회적 물의를 으기는 것이다.

서울교대 남태현군의 시신을 떠싼 유가족과 학생간의 의견이 대립, 마침내는 학교측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

한 것이다.

짧은 삶을 끝내며 죽어간 南군의 유해를 고향에 안장하려는 유가족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같이 공부하며 민주화를 외쳤던 교우를 학교에 안장 그 뜻을 기리려는 학생측의 생각에는 누구도 옳다 그보다 할 처지가 못되지만 시신을 중간에 두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일치시키지 못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더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이렇듯 새로운 고통을 파생시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땅의 수많은 자살을 탓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새로운 자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할일이라는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날로 더해가는 풍요의 불균형, 퇴보하는 민주화의 걸음, 열기는 뜨겁지만 방법은 좀체로 찾을 수 없는 통일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임태케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절망해선 안되고 더더욱 자살은 안된다. 인간에겐 살권리가 있지 죽을 권리라는 없는 것이다. 살면서 그 절망을 극복하는 노력이 바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술정이 산책



◇ 역사의 時針이 맹렬한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 마치 30년 전 이승만 정권 말기의 공포정치(?)를 연상케.

공안합수부 설치에 이어 각계 민주 인사투옥과 공공시설 파괴범(?)에 대한 총기사용 등 魏正權의 시대, 무시적 발상들이 한창기류를 형성.

「정권말기 최후발악」이라, 불안을 느끼다 못해 노망(老妄) 드신 모양인데 이런식의 노망정치 계속하다간 정말 노망(盧妄)정치가 될 것임을 명심하시암.

춘계 사제총회

— 해성학교 이전, 구 성모병원 매각 —

지난 4월 20일 전주교구 춘계 사제총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주교님이 계시지 않아 조금은 허전하였지만 그래도 국내 거주 전주교구 모든 사제들이 참석하여 교구의 사목, 교육, 관리,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관심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날 보고 과정에서 사목국은 「반모임」 활성화를 특히 강조하였고, 교육국은 중등부 교리와 10월 1일과 3일로 예정된 전주교구

어린이 청소년 성체대회, 홍보국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을 계획 발표하였다. 관리국에서는 요즘 특히 관심이 되고 있는 해성 중·고교의 삼천동 이전 문제, 구 성모병원의 매각에 관해 보고하면서 부지매입을 위한 기도와 착오없는 전동상가 매각을 위해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제에게 재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5명 정도의 평신도를 구성하여 토지매각 등, 교구의 재산 전반에 관한 자문을 듣기로 하였는데… 이런 착상이야 말로 민주를 사는 교회,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바람직한 교회를 향한 진일보라 할 수 있겠다. 사목은 사제, 운영은 평신도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에서 광활한 일이다. 물론, 총괄적으로 사제의 통솔을 받아야 할 것이다.

월 16일) 이날 행사는 해성중·고등학교 강당에서 35개 본당 중고 학생 7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신학교 및 각 수도회 소개 전시회를 비롯 성소에 대한 강의, 백일장, 사생대회가 있었다. 끝으로 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의 과견미사로 끝을 맺었다. 다음 해 성소주일에는 중고생만을 위한 성소행사를 탈피, 일반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 시복사성·성지개발

봉헌서 내역

1988년 9월~4월 15일 까지
봉헌서 총액

₩ 29,125,200 (430건)

김추기경님 봉헌

₩ 50,000,000

독일 마인쯔

₩ 18,000,000

로마교황청

₩ 36,224,000

현 봉헌금 총액 ₩ 133,349,200



△ 해성학교에서 있었던 성소주일 행사

■ 사목회 임원연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 성체성년의 해를 맞아 각 본당 사목위원을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세계성체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체신심 생활과 교회 전례생활, 한마음 한몸 운동 및 신뢰회복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 연수회에 참여한 사목위원은 총 457명이다.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실

시된 이 연수회를 통해 각 본당 공동체 안에서 사목위원들이 해내야 할 과제가 참으로 많다. 명예뿐인 사목위원이 아닌 구체적인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성소주일 행사

사제성소와 수도성소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성소증가를 위해 교회가 특별히 마련한 성소주일(4

언론의 소원은 분단 고착인가?

◇ 역사의 時針이 맹렬한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 마치 30년 전 이승만 정권 말기의 공포정치(?)를 연상케.

공안합수부 설치에 이어 각계 민주 인사투옥과 공공시설 파괴범(?)에 대한 총기사용 등 魏正權의 시대, 무시적 발상들이 한창기류를 형성.

「정권말기 최후발악」이라, 불안을 느끼다 못해 노망(老妄) 드신 모양인데 이런식의 노망정치 계속하다간 정말 노망(盧妄)정치가 될 것임을 명심하시암.

◇ 정부의 승인이 없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온몸을 독재정권에 부딪쳐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통일에의 순수한 열정으로 訪北를 결행한 文



목사를 「미친놈」 「정신병자」로 미친 듯이 매도한 것이 「민주화시대에 거듭난」 이땅의 언론의 모습.

본질은 외면하고 정부측의 주장과

논리로文목사 비난하는데 총궐기.
「한국언론의 소원은 분단고착」인 가.

◇ “전두환씨는 아랫사람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을 수도생활보다도 엄격하고 규칙적인 육군사관학교에서 갖고 닦았다.” 조선일보 80년3월28일자 사설.

5월 광주항쟁 진압군부에 대해 그해 5월28일자 사설은 잔인한 살육자들에게 「군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고 감사.

「민족의 정론지」 껌데기 쓰고 권력의 땡고물에만 연연하고 있는 조선일보.

위상양 내과의원

위상양 (프란치스코)
김병희 (클라라)

전주시 고사동2가 1-13
(완주농협·우신호텔앞)

병원 4-1225
자택 75-0034

동양한의원

한의사 민병부 (스테파노)

전주시 전동 시외버스 터미널 옆
한의원 84-2303
자택 84-2863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로)
안화동 (프리스카)

전주오거리 (신) 서강정형외과 앞
(구) 나정형외과

☎ 74-1123, 3-6709

조명기구전문판매점
(교우 특별우대)

- 특수조명
- 누전책임수리
- 장식 무너벨
- 각종 조명기구
- 가정용 전화기구
- 전기공사자료 제작도산매

▲ 전주백화점 건너편

광신족전업사

박상기 (안드레아)
장영자 (세시리아)

☎ 84-4753, 84-4566

한복

- * 약혼
- * 무용
- * 파티
- * 결혼

고려주단

전주시 고사동 (신혼예식장 골목)
전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 6-1902

홀아버니의 눈물 —노송성당 관리인 김요셉씨—



△ 김요셉 할아버지

현재 전주 노송성당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요셉 할아버지. 그는 한사코 속명과 나이 밝히기를 거부했다.

“오래 살아 나이만 먹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천주님 덕에 이렇게 복받고 사니 그저 요셉이면 됐지요. 본 이름은 알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멀리는 손으로 열어보이는 성당 사무실 옆 그의 비좁은 방 안에는 뜻밖으로 낡은 우산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다. 이 우산들은 ‘주님과 교우들로부터 받은 그간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김요셉씨의 작은 정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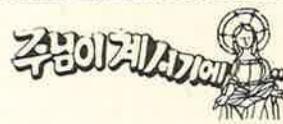
갑자기 비가 오면 고스란히 비를 맞고 돌아가야 하는 교우들에게 하나씩 우산을 나눠 주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째다.

대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요셉씨와 주님과의 인연도 삶이 가장 고달프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지금 서른 세살된 아들이 생후 8개월 됐을 무렵 아내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논 세 마지기리를 주고 데려온 가난한 시골집 처녀와 결혼, 남매를 낳고 재미있게 살아가던 몇 년간은 김씨의 생애에 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다.

우선 홀아비 혼자로서는 세살난 어린 딸과 8개월된 팫덩이를 키우며 생계인 우동집을 이끌어 갈 방도가 없었고, 아이들이 최우선이었던 그로선 재혼이란 말도 당치 않았다.



참으로 앞이 깜깜하기만 하던 그때 구원처럼 다가온 것은 신앙이었다. 그는 믿음이라도 있으면 버텨나갈 수 있을 듯 싶어 한 아이는 걸리고 한 아이는 업은 채 집가까이 있던中央성당을 찾았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주님과의 인연은 김요셉씨에게 언제나 든든한 의지가 돼 주었다. 살림은 갈 수록 곤궁해지고 몇 번이고 죽음을 결심했던 절박한 순간들…

지금도 김씨는 당시 中央성당

주임이셨던 故 김재덕 주교님께서 자신의 누추한 집을 찾아주었던 때의 감격을 잊지 못한다.

김씨의 지독한 궁핍을 목격한 김신부는 그에게 中央성당 관리인 자리를 제공했고 아울러 그분의 방문과 강복이 있는 후로 김요셉씨에게는 모든 일이 힘겨워도 만사형통으로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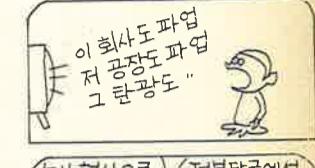
현재의 노송성당 관리인 직을 맡게 된 것은 4년 전의 일. 머지 않아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여생을 의탁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는 그에게는 자랑스런 따님 마리루시 수녀가 있다.

어머니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 한번 상해준 일 없는 어진 딸은 전주 교대를 나와 교사로 근무하다 83년 수녀원에 입회하였다.

지난 부활절에 보내 준 수녀 딸의 카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힌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준 주님이 계시니까요…”

요십이 (821) 김병오



⊕ 어두움에 빛을

이곳은 그가 생을 마칠 때까지假聖職團까지 조직하여 전교에 힘쓰던 곳이요 동생(觀儉)과 아들부부 등 일가족이 함께 치명학 뒤 집터는 방죽을 파버리는 수도로 당한다.

지금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이곳엔 그치지 않고 신자들의 참배는 있으나 허름한 안내판 하나가 고자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이 마을엔 교우가 하나도 없다. 2백년 넘게 西學派의 뿌리가 살아 있음인가. 흔적만 남은 草南부락의 성역화가 절실히 진다.

첫 순교자 유항검 생가터—초남이



△ 치명학
방죽으로
되어버렸던
현제
초남이 성지

교구소식

- 관구성직자 체전 : 5월 3일(수) 광주가톨릭 대학
- 훈인강좌 : 30(일) 오전 9시~30분 전주가톨릭센타 참가비 5,000원
- 중등부 교사학교 : 5월 12일(금) 오후 1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대상—중등부 교리교사 참가비—1인당 1,000원 내용—교재연수(각 학년별) 마리아론, 레크레이션 등
- 성모의 푸른군대Picnic : 5월 4일(목) 덕진천주교회 오전 10시~오후 4시 강사—서용복 신부님 준비물—미사도구, 묵주, 도시락지참
- 사제를 위한 5월 수도자 및 평신도 교구다락방 모임 : 일시—5월 7일(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타 성당
- 성모의 기사회 모임 : 5월 6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젊은 이)—저녁 미사 후 효자성당
- 사회복지 월례미사 : 5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사회복지회관
- 해외사제 주소 :

 - 김순태 신부님 Rev. Soon TAE Kim Francis House 2226 Maryland Ave Baltimore MD, 21218 U.S.A Tel 301-235-2588
 - 양경배 신부 Scuola Sacerdotale al vivaio Viale S. Francesco d'assisi 50064 Incisa Valdarno (Fi) ITALIA

- 가톨릭방송안내 : 5월 1일부터 CBS 매일밤 11시 45분~12시 「오늘을 보내며」 CBS 월요일 아침 8시 「CBS 칼럼」 MBC 월요일 아침 6시 50분 「아침을 달린다—명상」 * 신자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5월 1일 7시 30분 가톨릭센타 * 죽! 영명 : 5월 3일(성필립보, 야고보), 성민호, 김동준, 박병준 신부 축하합니다.

생가터가 아무 돌보는 이 없이 버려져 있다함은 전주교구신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完州郡 伊西面 南溪里 草南부락, 이곳은 한국천주교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호남고속도로로 전주인터체인지 를 끼고 남쪽으로 들어선 이동네는 얕으막한 야산에 둘러싸여 있다. 멀리 남동쪽으로 모악산의 연봉이 보이고 마을 앞의 넓적한 들판은 이 마을을 부촌스럽게 하고 있다. 40여가구가 모여사는 이 마을 중앙에 柳恒儉의 생가가 있고 마을 옆편의 야산엔 그의 가묘로 추정되는 묘소도 있다.

조선시대 천주교 수난의 역사가 전주에서 시작되고 尹持忠, 權尚然이 순교한 辛亥 珍山사건이 조선 최초의 순교사로서 역사에 길이 남겨지고 있지만 辛酉교난에 순교한 전라도의 천주교지도자 柳恒儉은 사실 막중한 역사 종교적 위치를 가지면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동정녀 李魯 갈다의 시아버지로서 柳恒儉의 일생은 우리 신자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누차 얘기하지는 않겠으나 그의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꾸르실료운동 20주년 기념
전주교구 울뜨레야
때 : 5월 12일(금) 10시~17시
곳 : 전주 해성 학교 강당

일분명상

누가 네 편에 있든 혹 반대편에 있든지 걱정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천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행하고 힘써라. 너의 좋은 양심을 보존하라. 그러면 천주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시는이는, 어떤 사람의 사악이라도 그를 해하지 못하리라.

토마스 아 캠퍼스

명동피부과의원

서범석 한의원

院長 徐範錫 (막시밀리안 쿨베)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전북대학교 앞 덕진신용협동조합앞)
☎ 72-2885, 75-3533

* 일요일은 휴진

경기장 농협 덕진지점
서범석 한의원

진로유통 참스
(수제전문브랜드)

특약점

두울·鮮京커텐, 스완카페트
실키브리언드·흔수예품

나비커텐

정 걸(알베로또)
김 강(엘리사벳)
중앙동 가구점길(에이스침대앞)
☎ 82-2226, 86-5611

**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
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 일 균(아오스팅)
윤 귀자(로사리아)
병원 84-7266 집 6-6417
관통로 전주백화점→다가교중간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챤 생활의 꾸르실르
DE COLORES

꾸르실료운동 20주년 기념
전주교구 울뜨레야
때 : 5월 12일(금) 10시~17시
곳 : 전주 해성 학교 강당

냉담자들은 울먹이고 외인들은 감탄!

서신동 바자회를 마치고...

봄, 바자회를 치른 지금은 정녕 새로운 봄이었다. 그 동안 쉬임 없는 할머니들의 9일 기도가 밀 거름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은 비어져 자연스레 바치는 희생으로 이끌리어 갔다. 쓰고 남은 물품이 아닌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내어 놓아 바자회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채소와 곡식이 쓰고 남았다. 이렇듯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갔다. 이에 감화를 받아 냉담자들은 울먹이며 뉘우쳤고 외인들까지도 뒷바라지를 적극 도와 주었다. 오히려 도와주어야 할 주변인들이 선뜻 경품권을 사주는가 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천막 등을 빌려 주며 격려해 주는 이들, 온 교구내의 신자들과 상인들까지도 우리는 하나였다. 그동안 간간이 일어나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으로 빛 어진 불협화음도 나누는 사랑 안에서 일치할 수 있었고 너무 힘들어 울고만 자매가 자신을 기쁨으로 봉헌 하는 모습에서 신앙인의 아름다움을 엿보았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쏟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을 곳곳에서 발견하며 얼마나 많은 감동으로 목이 메었던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무슨 일이고 뭉쳐 나아가면 이를 하리

라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이 삶을 보존하고 발전 시키므로 복음적인 삶을 겸손되어 살아 이웃에 전파할 사명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해 본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빈다.



◆ 신부님들의 순환강론기대

신자들은 일주일만에야 겨우 미사에 참여하고 그 주일의 강론을 듣게 되는게 대부분이다. 짧거나 길거나 그 강론의 시간이 문제라기 보다는 얼마만큼 신자들에게 호소력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한주일의 양식이 될만큼 준비된 내용인가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성서구절의 되풀이 낭독식의 내용이다. 횡설수설, 종잡을 수 없는 공부안한 강론 내용은 신자들을 즐겁게 만 한다나? 사제님들께서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준비해주신다면 신자들의 일주일은 더 보람되고 신앙심이 울어나는 시간이 될텐데… 가끔씩 교구내 신부님들이 본당을 바꾸어 가며 '순환강론'이라도 …….

◆ 영성체 후의 신자들 모습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로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영성체 시간, 그런데 그 행복을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여 어이가 없다. 심각하게 성호를 굳는 교우, 누가 있는지 그저 꾸벅 꾸벅 절을 해대는 교우, 무엇을 잊어 버렸는지 연신 두리번거리는 교우, 심지어 칙칙거리고 웃거나 잡담하는 교우들까지 발견한다. 더욱기 떨어진 성체를 그냥 두고 가는 교우를 볼 때면 가슴이 멀겋게 내려앉는다. 날 사랑하시는 '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어디에 정신을 판단 말인가? 그저 조용히 감사하는 맘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느끼자. 성호도 절도 필요없다. 그저 묵묵히 죄많은 '나'를 찾아오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자.

◆ 올바로 알고 전교하자

신자 아내를 따라 아무것도 모르고 미사에 참여한 어느 남편의 모습. 자꾸 미사 중간에 아내의 옆 구리를 찌르며 질문을 던진다. "방금 왜 이마와 입과 가슴에 손으로 무얼 그어대지?" "나도 잘 몰라요. '주께 영광'하고 그냥 따라하세요" 두련대는 소리가 미사에 방해가 된다기보다는 미사 중에 신자들이 응답하는 여러 행위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따라하는 신자들이 한심스럽다. 전교! 외짝교우들은 더욱 시급하겠지만 뭘 좀 알고 전교할 용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알고 봅시다

◀ 영화 ▶ 아름다운 영혼—『간디』



영화 題名 그대로 전기영화이다.

그리고 뭉클한 것이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이고 아주 장대한 스케일의 스펙터클한 영화이다. 이 영화에 그려진 간디는 높은 곳에 앉아서 대중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다. 민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울고, 그러다 충격적인 죽음으로 일생을 마친 인도의 지도자를 인간미 넘치게 부각시킨다.

그는 인도 국민의 영웅으로서 독립을 외치는 반영(反英)투쟁에 앞장선다. '적이 때리려 들면 아

주 맞아 주어라. 쏘이 들면 당당히 가슴을 끌고 총막이가 되라. 다만 이쪽에서 상대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은 절대로 안된다.' 아텐보로 감독은 지도자로서의 간디의 영향력의 크기와 동시에 매스콤을 교묘하게 타는 세론(世論) 조종의 뛰어남을, 음으로 양으로 내조하는 부인과의 부부애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해냄으로써 인간 간디의 매력을 더해준다. 1948년 1월30일 오후 5시12분, 평생을 인도의 독립운동에 바친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의 극우파 소속 고드세의 저격을 받는다.

'평화' 자체라고 할만큼의 간디의 비폭력사상, 78세의 나이로 절명했을 때 인도 국민은 모두 슬픔에 잠겼다.

인도의 아름답고 광대한 풍경을 담은 화면, 가슴을 적시는 멜로디도 이 영화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돋군다. 영국인의 손에 의해 대영제국에 저항한 독립투사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 시대는 달라져도 크게 달라졌음을 통감케 한다.

▣ 원고모집 ▣

매월 마지막 주 금성이를 위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마감 : 매달 10일 · 원고량 : 나침반(평신도가 교회에 하고 싶은 말) 5매 · 인물, 성가정 소개 6매 · 기타 5매

보내실 곳 : 560-09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청 홍보국 전화85-004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예수승천 활동미사 및 제육대회 : 장소 - 성심여중·고 시간 - 오전10시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1929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84-2276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10229

* 축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1.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 및 잔치 : 오늘 공식미사후
2. 5월2일 : 자모회 - 전10시 성심회 - 후2시 윤드레아 - 후8시
3. 사목회 : 6일(토) 후8시
4. 남전주지구 활동미사 및 제육대회 : 7일(일) 전10시(9시30분까지 입장) (중·고생 공식미사 없음) 각부서별 운동선수 참가자와 선축모금을 위한 칠밥·동동주 판매에 협조를 바랍니다.
5. 신축금 신입자 : 장기연5만원, 앤드레이(진안)2만원
6. 윤전기금 모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금주전례 : 해설·문자구 성인복사·박종구 정순태
봉헌·이종근부부
차주전례 : 해설·정순태 성인복사·이진국 한상철
봉헌·이우창부부
□ 지난주봉헌금 : 340,830원 □ 교무금 : 343,500원
□ 자선헌금 : 26,610원 □ 신축금신입총액 : 145,754,836원
□ 올전기금신입총액 : 1,160,000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정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희상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 복자
회장단회 : 오늘 저녁미사후
4. 밀알회 : 3일 18:30
제대회 : 4일 오전 10:30 6.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 5일 오전11시
성체감복 : 6일 저녁미사후, 8대간회, 7일 공식 미사후
예수승천 대축일 행사 : 7일 오전9:30 성심학교 운동장
본당미사 : 특별미사 주일 새벽미사

※ 5월은 성모성월 : 매일미사후 복주기도

5월주전례 : 해설·유기자, 1도서·이상인, 2독서·최영숙, 봉헌·이상

인 씨 부부
6. 어머니성가대 월례회 : 5일 오전9:30 성심학교 운동장

7. 지난주 봉헌금 : 491,940원 □ 교무금 : 786,700원

□ 지난주 봉헌금 : 278,180원 □ 교무금 : 561,000원

□ 신축금 신입 : 9,010,000원(입금 2,970,000원)

1. 남전주지구 예수승천 활동미사 및 제육대회 : 성심학교 미사10시 9시30분까지 입장 본당에서는 새벽6시미사만 있음 수 7:30

2. 새예비자 환영식 : 5월7일 성심학교에서 교리시간 일 9:30

3. 신자가정사목방문 : 금주·쌍용2단지 차주·삼천동 주택지역

4. 첫 영성체교리 : 매주 화·금 오후5시

5. 성체감성가 대축일 : 5:14 오후8시 참가비 2,000원 지정곡 1곡 - 46장 사랑의 송가 자유곡 1곡

6. 성지순례 : 6:11 배론 참가비 7,000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7. 성체대회 빛지, 스티커판매 : 빛지·천원 스티커·이천원

8. 오늘은 치령자선·성지개발을 위해 2차헌금 있습니다.

9. 오늘은 교무금·납부주일입니다.

□ 지난주봉헌금 : 754,920원 □ 교무금 : 893,000원

□ 금요나눔의 헌금 : 68,960원

성모기사회 : 5월6일 오전10시(성인) 오후6시미사후(청년)

□ 지난주봉헌금 : 181,850원 □ 교무금 : 131,000원

□ 신축금 신입 : 24,800,000원 □ 현재신입총액 : 127,326,000원

사제관 86-307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수녀원 87-0711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사무실 84-3222 · 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수현
유치원 84-8347 · 레지아 83-5085 보좌신부 김선태
사제관 82-6232 · 82-7245 사목회장 안득수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오늘 저녁미사후 사목회

1. 나눔의 주일입니다.

2. 예수승천 대축일은 남전지구활동미사 및 제육대회 : 5월7일 9:30 성심학교

3. 돌담회 월례회 : 오늘 오후6시20분

4. 여성분과 월례회 : 5월(금) 어머니미사후 30분

5. 인심공손미사 : 5월(금) 오후7시30분

6. 연중 감사헌금(교무금)은 매월 정성껏 봉헌합시다.

7. 시목회 임원수련회 : 5월12일 오전8시30분

8. 기정방문 : 2일~태워 4일~부궁화

금주전례 : 해설·조신우 독서①김혜곤 ②나규순
기도·김광택 문옥선

□ 지난주봉헌금 : 385,500원 □ 교무금 : 728,000원

※ 예수승천대축일 야외미사 및 제육대회 : 5월7일 오전10:00 성심학교

여고 교정, 입장 9:30 완료 당일본당미사는 없음. 전신자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1. 성체강복 : 4일 오전미사후

2. 사목회 월례회 : 6일 저녁미사후

3. 사제관제육대회 : 3일 광주 가톨릭대학 미사시간변경~오전6시 30분

4. 교무금납부의 날 : 매월 첫주(다음주)

5. 성체대회 빛지 : 전신자 착용하세요.

6. 족 결혼 : 신랑·유용석 신부·김명숙(프란치스카 로마나) 오후 2:00 중앙성당

□ 지난주봉헌금 : 181,850원 □ 교무금 : 131,000원

※ 성전보수헌금 바릅니다. ※ 89년 교무금 신입바람

1. 오늘 공식미사중에 예비자 인도서약서 봉원(왕영식-14일 공식 미사후)

2. 첫 영성체교리안내 : 3학년이상

5월1일~19일까지 월요일~금요일 오후4시 3. 별자방문 : 5월5일

4. 저녁미사 시간변경 : 7시에서 7시30분미사(다음주일부터) 토요일 미사는 종전대로 6시 5. 글라라형제회 1일피정 :

6. 6일(토) 오전9시~4시 · 강사·백종수 (안젤로) 수사님

6. 예수승천대축일 행사안내 : 남전주지구 활동미사(성심학교 10시 미사) · 9시30분까지 입장완료 참석신자에게 모자무료 배부함

· 점심시간 참지 : 현지에서 도시락 음료수 판매 · 본당신자들의 많

은 참석바람 · 본당미사·새벽5시30분 저녁7시30분

7. 5,000원 □ 금주보수

비현금액 : 675,000원 □ 현제모금총액 : 20,191,910원 □ 금주

보수비신입액 : 24,800,000원 □ 현재신입총액 : 127,326,000원